

성스럽고 싶은가, 성스럽게 행하라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前금강대 총장 편역)

18. 인간 형성(形成)의 원리 ①

賤한 것은 누구인가

붓다 설법가운데서 다시 두 세 개의 경전을 열거해 볼까 한다. 그 하나는 '경집(經集·Suttanipata)' 속에 기록되어 있는 <천민경(賤民經)>이라는 제목이 붙은 경전이다. 그것은 붓다가 기원정사(祇園精舍)에 있었던 때의 일이다. 평상시처럼 이른 아침에 의발(衣鉢)을 정리하고 슈라바이스티(사위성)의 거리에 들어가서 어떤 집 앞에 그는 발길을 멈추었다. 그것은 어느 바라문(婆羅門)의 집이었으며 집안에서는 이제 막 신화(神火)를 켜며 공양(供養)의 물건을 바치려는 때였다.

"사문(沙門)이여, 멈추어라. 천(賤)한 자여, 멈추어라. 이 신성(神聖)한 장소에 가까이 오면 안되느니라."

그것은 이 새로운 길을 설명하는 사문이 제단(祭壇)에 접근하는 것을 더러운 일로 생각한 그 바라문의 노여움 음성이었다. 그러나 붓다는 온화한 얼굴색을 조금도 변하지 않으면서 낮은 목소리로 이 바라문에게 물었다.

"바라문이여, 그러면 천한 사람이란 누구인가? 어떻게 하여 사람은 천한 자가 되는가?"

이러한 질문을 받은 바라문은 생각하여 보니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본 일은 여태까지 없었던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일컨대, 사문이여 나를 위해서 설명하여 주시오' 하면서 간청하였다. 그때 붓다가 그를 위해서 '천한 자는 누구인가'에 관해서 또 '어떻게 하여 사람은 천한 자가 되는가'에 관해서 말한 것을 이 경전은 서문일곱 가지의 계(條)로써 기록하고 있다.

그 설명은 매우 구체적인 예로써 이루어져 있다. 사견(邪見)을 품는 자나 아침의 마

음이 있는 자도 천한 자의 예로써 설명되어 있다. 모든 생명에 대해서 자애(慈愛)의 마음이 없는 자도 천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자기는 부유(富裕)하게 살면서도 늙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도 천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 또 진실한 성자(聖者)가 아니면서도 거짓으로 성자라고 공언(公言)한다면 그것은 가장 천한 것이라고도 설명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생각이 차츰 정돈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붓다는 이러한 사례(事例)에 일관하는 원리를 제시한다. 그 원리는 잘 알려진 다음과 같은 계(條)로써 표현되어 있다.

사람은 그 출생에 따라서 천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 그 출생에 따라서

성(聖)스러운 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사람은 그 업(業, Karma, 행위)에 따라서

천한 자가 되며

또 그 업에 따라서

성스러운 자가 되는 것이다.

이 계(條)가 말하는 바는 소극적으로는 종래의 바라문적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바라문의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모든 인간의 모습은 그 출생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바라문의 올바른 계보(系譜)를 등에 업고 태어난 자는 나면서부터 바라문이며 성스러운 것으로서 사회의 최상층에 있는 것이다. 만일 수드라(노예)의 계보 밑에 태어난 자는 나면서부터 수드라이며, 평생동안 '오직 위의 삼족(三族)에 봉사한다'는 운명을 걸머지고 살아 가야 한다. 그런 사고방식이 견고하게 제도화(制度化)된 것이 소위 카스트(종성제도,

種姓制度)이며 오랫동안 인도 민족을 해(害)쳤으며 오늘날도 여전히 인도의 가장 큰 병폐(病弊)로서 존재하고 있다.

붓다는 이러한 바라문적인 원리를 부정하였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원리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인간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그 행위(行爲)여야 한다는 가르침이었다. 불교의 용어로서 말한다면 업(業)이야말로 인간 궁극의 결정원리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이 계(條)의 후반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성스러운 자는 누구인가

같은 뜻의 계(條)는 다른 경전에서도 여러 번 설명되어 있다. 그 하나는 이미 인용한 <경집(經集)>속의 <파사타경(婆私吒經)>에서 볼 수 있다. 거기에서는 붓다는 파세타라는 젊은 바라문학자를 위해서 진정한 바라문 진정한 성자(聖者)란 어떠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여 63계(條)에 이르는 간곡한 설명을 펴고 있다.

그 설명의 방법은 딱 흥미 깊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붓다는 먼저 초목과 동물에 있어서의 그 있는 모습에 관해서 말한다. 잣나무의 씨앗은 어디까지나 잣나무이며, 소나무의 씨앗은 언제까지나 소나무이다. 개미새끼는 언제까지나 개미이며, 귀뚜라미의 새끼는 언제까지나 귀뚜라미이다. 거기에는 분명히 '출생에 따라서 서로 다른 구별이 있다'라는 원리가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세계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고 붓다는 가르치신다. 여기에서는 그 차별을 지배하는 원리는 벌써 그 '출생'이 아니며 그 '행위' 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예를 들면 땅을 갈며 그것으로써 생업(生業)을 삼는 자를, 사람들은 농부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또 매매(賣買)를 생업으로 하는 자는 상인(商人)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혹은 흠치며 그것으로써 생활하는 자가 있다면 사람들은 그를 도적이라고 부를 것이다. 혹은 또 제사(祭祀)를 담당하며 그것으로써

생활을 하는 자는 그것을 사제자(司祭者)라고 부를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성자(聖者)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붓다는 인간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은 그 '출생'이 아니며 그 '행위' 입을 차츰 차츰 그 젊은 학생에게 납득시킨다. 다시 또 진정한 성자란 어떠한 행위를 하는 자인가를 설명하면서 아름다운 계(條)를 전개하는 것이다.

지혜 깊고 현명한 생각이 있어서
길과 길아님과를 구별하며
최상의 도리(道理)에 도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나는 성자(聖者)라고 부른다.

기침은 말은 하지 않으며,
도리와 진실의 말을 말하며
말에 의해서 누구이건 성나게 하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나는 성자라고 부른다.
악의(惡意)있는 자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악의 없으며
칼과 막대기를 든 자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은순하며
집착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집착 없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나는 성자라고 부른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그러한 것의 구체적인 사례에 일관하는 원리로서 "사람은 그 출생에 따라서 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며 또 그 출생에 따라서 성스럽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사람은 그 행위(業)에 따라서 성스러운 사람이 되며 또 그 행위(業)에 따라서 성스럽지 않은 사람이 된다"고 설명한다.

앞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하여 천한 사람이 되는가를 말하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행위'이다. 라고 결론지었지만 여기에서도 또 붓다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면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행위'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행복 스님의
一切唯心造

열린 불교, 닫힌 사찰

어느 대학이 있다고 하자. 그 대학 출신이 아니면 교수를 할 수도 없고 교직원도 될 수 없으며 학과장이나 학장, 총장 또는 이사나 원장이 될 수 없다 하자. 그런 대학이 지구촌에 존재할 수 있을까?

존재할 수도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그런 곳이 존재한다. 그것도 불교의 대표 종단인 조계종의 큰 사찰에 버젓이 존재한다.

그 사찰의 출신 승려가 아니면 승가대학의 총장도, 율원장도, 선원장도 될 수 없다. 주지며 조실이며 방장 또한 될 수 없다. 문중(門中)이라는 이름의 튼튼한 뿌리가 해방 이후 조계종단에는 흔들림없이 그 세력을 키워왔다. 자비문중하면 불교 종단을 떠올릴 만큼 불교는 트인 종교요, 열린 종교요, 벽이 없는 종교이다. 거기다가 세속의 애착도 저버리고 부모와 형제의 정마저 떨리하고 떠나오신 스님들이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출가(出家) 이후 문중의 그늘에 안주(安住)한다. 파벌 비

한국불교는 神불교인가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다. 부처는 깨달은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불교는 진리를 깨달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종교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한국 불교의 현 주소는 부처님의 가르침보다는 의식(儀式)불교로 크게 기울고 있다. 스님의 설법 내용이 경전 중심으로 짜여야 한다. 그런데도 경설 따라 삼천리 같은 영험 설화 쪽으로 쏠리고 있다.

사찰의 법당은 무당의 불당과는 다른 것이다. 법당에서는 향내 나는 설법이 끊임없이 울려 퍼져야 한다.

그런데도 한국 불교의 스님들은 세계 17개국 불교를 신행하는 나라 중 목탁치는 첩피언 자리를 굳건히 지켜오고 있다.

불교에는 구원을 약속해주는 메시아가 없다.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가르침이 있을 뿐. 부처님은 스승이요, 불교도들은 그의 제자일 뿐이다.

불교에는 섬겨야 할 신(神)이 없는데

문중 빗장 열고 열린 승가교육해야

불교엔 神 없어... '거래 신앙' 막 내려야

숫하게 말뚝을 박고 울타리를 겹겹이 친다. 하여 우리 절 우리 스님으로 끼리끼리 세력을 굳히려 한다면 지극히 세속적인 희극이 아닐 수 없을 터이다. 불교의 육화(六和) 정신과 원효의 화쟁(和爭) 사상에 어긋나는 행위일 테니까.

불교는 열려 있으나 사찰은 닫혀 있다. 부처님은 진리의 상징으로 큰 스승님이 분명하나, 종단의 승려들은 졸이든 모습으로 나날이 세속화 되어가고 있다. 물론 종단에는 스승으로 만인이 모실만한 선지식도 많고 문중에 자유로운 수행승도 많은 게 사실이다.

종단의 미래를 염려하여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는 실천하는 승려들도 술하게 많이 늘려야 한다. 그러긴 하나 문중 사찰의 보호담장이 너무 견고하고 철옹성처럼 튼튼하다. 그러나 할 말은 해야 한다.

제발이지 문중을 보호하는 빗장이 하루 속히 열리기를, 하여, 내 절 네 절 가리지 말고 열린 교육으로 인재를 육성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종단, 그런 사찰이 되기를.

도, 사찰의 현주소에 섬겨야 할 신도 많고, 영험함은 불보살도 부지기수로 널려 있다.

세계의 종교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일체유신조(一切唯神造)의 종교요, 또 하나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종교다.

불교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로서 후자 쪽이다.

하물며 스님들이 신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메신저일 수 없고, 길흉화복을 해결하는 구세주일 수 없는 것이다. 목탁치는 농도에 따라서 액운이 소멸되고 소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돈에 의해 목탁치는 시간이 짧고 길어진다. 이것은 숫세 순수 신앙이 아닌 거래 신앙으로 막 내려야 할 연극이다.

마치 대리운전 하듯 돈 받고 대신 목탁을 치며 기도한다면 그것은 효험도 약효도 더디 올 난세에 불과하다.

한국 불교는 신(神)불교는 아니어야 한다. 땃땃하고 당당하게 열린 진리의 세계로, 부처님 가르침 중심 불교로 와야 한다.



인도 뭍바이의 도비가트. 빨래터로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마지막까지 손빨래꾼으로 살아야 한다. 출생에 따라 지위가 나눠지는 카스트 제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부처님은 이 같은 카스트 제도를 반대했고 출신이 아닌 그 사람의 행위가 그 사람을 귀천을 결정짓는다고 설했다.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창

www.hyunbulshop.com

가격 10만원 ⇨ 90,000원
입금계좌 : 동행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인쇄상

CD01-제1, 서문(39:25)	제8, 오색제자수기(21:11)	제15, 종지출품(04:36)	제22, 속루품(04:36)
CD02-제2, 방편품(46:51)	CD06-제9, 수학무학인기(11:22)	제16, 여래수랑품(23:10)	제23, 악왕보살본사(23:10)
CD03-제3, 비유품(54:48)	제10, 법사품(18:39)	제17, 분별공덕품(23:31)	CD10-제24, 유물보살품(16:12)
CD04-제4, 신해품(30:24)	제11, 건보탈품(22:19)	제18, 수화공덕품(13:23)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5, 악초유품(16:08)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9-제19, 반사공덕품(24:17)	제26, 다라니품(10:07)
제6, 수기품(17:13)	CD07-제13, 권지품(10:0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7, 묘장엄왕본사(14:46)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14, 안력행품(27:27)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8, 보현보살연발품(14:07)